

인사말씀

- 마음의 소리를 손짓으로 전하는 수화사랑 음악회 -

21세기는 문화복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수화사랑 음악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펼치는 복지문화의 장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입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소리를 몸짓으로 전하는 수화사랑 음악회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화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청각장애인 연화직업재활원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각종 꽃누름 압화공예품을 제작, 보급하고 전국 꽃배달 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외된 이웃, 고통 받는 이웃들의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불교전문자원봉사자 양성 특히, 불자요양보호사 양성에 앞장서 병원과 요양원에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보살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비의 쌀 나눔과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이웃들의 다정한 친구 해성스님과 광림사 신도, 연화원 임직원 여러분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수화사랑 음악회를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손짓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맑고 아름다운 손짓으로 다듬어지고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가 모든 이들의 가슴 가슴마다 어울어져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